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 제2주일
제34권 2호(가해) 2013.12.8

[묵상]



요한 세례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고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나(EGO)' 즉 자기 중심으로 되어있는 우리들의 사고방식,
이것을 XTO 중심으로(너를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회개 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눈을 돌리게 된다.

이웃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이웃을 그저 타인으로만 생각하여 오지는 않았는지,
이웃과 나의 관계는 혹 종속적이거나 지배적이지는 않았는지,
거짓되고 위선적이었던 이웃과의 관계라면,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 안에서,
인간화, 형제화, 동료화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제 이웃은 나에게 타인으로 남지 않게 된다.
이제 이웃은 내 자신의 이익과 필요를 위한 존재로 남지 않는다.
이제 이웃과 나는 하느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3:00 오후 6:00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제단체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 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견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특전미사	(생)이은지 수산나, 유보나 보나, 최보나 보나
주 일 낮 미사	(연)이윤조 클라라, 김성일 바오로, 신대진 베드로, 이경용 야고보, 유정복 베네딕도, 이명자 로사, 이윤식 베드로, 김마리아 & 김기태 바오로, 김종환 야고보, 최근석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주용범 아브라함, 허동수 루스 & 허정자 레지나, 낙태된 아기들
	(생)김현우 니콜라스, 정원재 그레이스 & 김서량 토마스, 이선복, 엄영숙 마리아, 유명련 마리아, 박제시카 마리아, 최은정 레지나 & 김지원 임마쿨라따, 이행자 리드비나 & 하정화 켈마, 김택수 프란치스코 & 김명숙 루실라 가정, 이순자 비비안나 & 이민상 요한, 정승원 셀라 & 트래이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11,1-10

화답송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주 - 님, 이 시대 에 정의와평화가 꽃피게 하 소 서.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그의 이름 영원히 이어지며, 그의 이름 해처럼
솟아오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그를 칭송하게 하소서.○

제 2독서 로마서(Romans) 15,4-9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끝까지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복 음 마태오(Matthew) 3,1-12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33	131	130
봉헌	이렇게 좋은날	257	269
성체	Refiner's Fire	307	289
파견	130	130	125

올바른 성모신심

제3장 성모 공경을 드러내는 기도와 성월

3) 묵주기도

이러한 과정은 묵주기도가 성모 마리아와 함께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임을 잘 보여 준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묵주기도의 가치를 '다시 찾아야 할 보화'로 규정하며 복자 바르톨로 롱고(Bartolo Rongo)의 기도문을 인용하고 있다.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느님께 묶어 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 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묵주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 묵주의 모후이신 성모님 ……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 또 영원토록 하늘 땅 어디에서나 찬미 받으소서.”

4) 성모 호칭 기도

이 기도의 기원과 발전에 관하여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아마도 성인 호칭 기도에서 발전한 것으로 추측된다. 7-8세기 부터 있었던 성인 호칭 기도에서 성모님의 호칭이 들어 있는 것으로보아 짐작할 수 있다. 그 후 12세기경부터 성모님의 호칭들이 독자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성모 호칭 기도는 성모님께 드리는 찬미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기도는 발생 지역에 따라, ‘베네치아 성모 호칭 기도’, 이탈리아의 성지 로레토(Loreto)의 이름을 딴 ‘라우레타노 성모 호칭 기도’(Litaniae Lauretanae), 또는 탄원의 성격이 강한 ‘탄원 성모 호칭 기도’등이 있다.

성모 호칭 기도에서 들어 있는 다양한 칭호들 가운데 가장 최근에 새로이 삽입된 것은 ‘교회의 어머니’라는 칭호이다. 이 칭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마리아를 교회론과 연관하여 숙고한결과 바오로 6세 교황이 결정한 것이다. 성모님의 다양한 칭호들은 순례의 길에서 갖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신자들에게 위로와희망을 주는 칭호들로서 때 순간 부르며 다가갈 수 있는 어머니의 이름이다. 오늘날 레지오 단원들은 자신들의 뻘래시 다음이나 꾸리아, 꼬미시움, 레지아, 또는 세나투스의 명칭으로 성모 호칭 기도에서 나타나는 성모님의 호칭을 선택하고 있다.

5) 마리아의 노래(성모의 노래)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성무일도 저녁기도에서 항상 ‘마리아의 노래’(루카 1,46-55, Magnificat)를 바친다. 레지오 단원들은 ‘까메나’에서 이 노래로 기도한다.

이 노래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미 성모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자료이다. 이 노래는 마리아에게 이루신 하느님의 업적에 대한 찬양과, 인간 역사 안에 행하신 하느님의 업적 찬양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노래는 ‘주님의 가난한 자들’(anawim)을 돌보시는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다. <◆계속>

소박하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자 제32회 '인권주일'입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에 맞는 삶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교회가 만천하에 천명하는 날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물질적풍요를 누리는 사회라도 그 중심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진정한 안녕과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경제 개발논리로 인하여 공동선이 파괴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권리가 훼손되는 현상을 끊임없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국내 인권문제에는 다소 관심과 지지를 보내지만,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먼 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어느 학생이 했던 이야기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국내의 환경 파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그 문제에 대한 글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지구촌에서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를 사용해 보지도 못한 어느 나라가 얼마 지나지 않아 물에 잠기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국토가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 사회는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까지도 경제적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물질과 편리함 안에서 헛된 행복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지구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물질만능주의와 생명경

시풍조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였으며, 우리를 '죽음의 문화' 현상들의 위협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몇 해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지구촌 생명체들이 사용하는 신진대사의 필수기 본요소 여섯 가지 중에서 '인'(P)을 대신하여 독극물인 '규소'(Si)를 사용해 생명을 유지하는 바이러스를 발견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이 이렇게 심오한데, 하물며 우리가 생명을 조정하고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한 번 깊게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말씀에서 세례자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마태 3,2.11)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천하고 초라한 것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때, 비로소 소박하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알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말구유에 누워계신 아기 예수님을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한 주 동안에도 굳이 인간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고자 하시는 아기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느껴 볼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곧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립시다.

◆전영준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 서로 인사 합시다. ☺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사벳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박진수 스테파노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보나 보나	신덕례 테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대림 제2주일(가해)

오늘 우리는 두번째 대림초를 켜습니다. 앞으로 남은 3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준비하고, 오실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성탄 합동 판공성사 : 12월11일(수)

- 참회예절 : 오후 7시 저녁미사 중
 - 고해성사 : 오후 8시부터(주일학교 성사일정 같음)
 - 대림시기 중 드리는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입니다.
- 판공일 전 미사전후 고해성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례식 : 12월15일(주일) 낮미사중

◆성탄 대축일 밤미사 : 12월24일(화) 밤 9시
성탄대축일 낮미사 : 12월25일(수) 낮 11시

◆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미사
● 9일(월) 오전 6시30분

◆ 대림 특강 II

- 일시 : 대림 제2주일(오늘주일 8일) 오후 1시
- 장소 : 성전
- 주제 : '신앙은 천하지대본야(天下之大本也)'
- 강사 : 오창근 베드로 본당 신부님
- 문의 : 금영도 베드로 ☎(213)505-2941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연차 총 친목회

- 일시 : 오늘 주일(8일) 대림특강후 오후 2시30분~5시
 - 장소 : 강당
 - 참가대상 : 활동단원
 - 내용 : "골든벨을 울려라"
- 예선과 본선을 거쳐 1,2,3등을 뽑습니다.
* 참가비 : 각 브레시디움 활동단원 숫자대로 \$5 씩
● 문의 : 남성철 베네딕도 꾸리아단장 ☎(310)409-1443

◆ 평일 미사시간 임시 변경 안내

본당 신부님의 성탄판공성사 출장관계로 평일미사 시간을 임시 변경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12월 10일(화), 17일(화), 18일(수), 19일(목)) 4일간의 저녁미사가 아침미사(오전 8시30분)로 변경됩니다.

◆ 성탄맞이 대청소와 카펫클리닝

성탄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교실, 화장실, 친교장, 부엌, 정원, 축구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청소합니다.

- 전교우 대청소 : 15일(주일) 낮미사 마치고 친교점심후
- 카펫클리닝 : 16일(월), 17일(화)
- 청소 담당구역 : 구역장/반장, 개시판 참조
- 문의 : 김명재 아가다 소공동체부장 ☎(310)866-8778

◆ 백삼위 한국학교에 도네이션해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정훈 안셀모 님(프로젝터1대), 사도들의모후pr.(격려편지와 함께 \$500), 이재용 안드레아 님(\$300)
- 기도로 도와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미주가톨릭방송에서 방송인재를 초빙합니다.

- 대상 : 편집, 구성, 기술직, 아나운서 봉사자
- 방송시간 : 매주토 오후 7시~9시 AM1650(라디오서울)
매주일 오전 6시~8시 AM1230(우리방송)
- 문의 : 미주가톨릭방송(LA월서블러바드 3435 #2620)
☎(858)366-4010

◆ 장궤틀 사용할 때와 성체조배실 앞에서 조용히 합시다.

- 성전에서 장궤틀을 사용하실 때 가급적 소리나지않게 조용히 내리고 올립니다.
- 기도하는 분들에게 방해되지않도록 성체조배실 앞에서 조용히 합시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2월8일(주일) : 토런스 서 2반(북어국 \$3)
* 주일학교(11학년 카레라이스)
- 12월15일(주일) : 토런스 남 2/3반(짜장밥 \$3)
* 주일학교(10학년 피자)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운철 김윤진 박정희 원건희 이영희 전정일 최득순	강인모 김정웅 방정복 유근태 이은록 조소영 최태훈	구자운 김준호 신경훈 윤희동 이인두 주대중 현석주	김선제 김학겸 엄지선 이근모 이일랑 주영석 영희가보라	김양금 남명자 오인순 이근태 이태옥 지경수 최기호	김영경 박씨니 오현희 이명선 장정진 최기호
합계 : \$5,695						
주일미사 헌금 : \$2,661	2차헌금(수도자은퇴기금) : \$1,987					
성전헌금	강운철 남명자 원건희 이일랑 최득순	강인모 박씨니 윤희동 장정진 최태훈	구자운 박정희 이근모 전정일 영희가보라	김선제 방정복 이근태 주대중	김양금 신경훈 이영희 지경수	김준호 오현희 이은록 최기호
합계 : \$2,715						
감사헌금 : 이영미	장수창 김주량					

□ 주일학교 소식 □

◆ 주일학교 성탄 예술제

- 일시 : 12월14일(토) 오후 2시~4시 * 장소 : 성전
- 대상 : 유치원~12학년
- 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행사담당교사 ☎(310)613-9116
- 학부모와 일반교우들, 사목위원, 단체장들께서 많이 참석하시어 주일학교 학생들을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보호봉사자 필수교육(Virtus Training)

- 일시 : 12월22일(주일) 오후 1시~4시, 강당
- 대상 : 성직자, 수도자, 주일학교/한국학교 교사, 자모회, 청소년관련 사목위원 및 모든 봉사자
- 강사 : 서정우 프란치스코 ☎ 310-408-9070)

◆ 대학수능 SAT한국어 시험 만점자 2명

- 백삼위 한국학교에 재학중인 이진욱 아오스당과 이현준 다니엘 두 학생이 SAT Subject Test Korean 시험에 만점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밖에도 SAT반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 한인 가톨릭 청소년 대회(Korean Catholic Youth Day)

- 일시 : 2014년 1월4일(토) 오전 8시30분~오후 7시30분
- 주제 : Lumen Fidei(The Light of Faith)
- 장소 : Servite 하이스쿨(1952 W. La Palma Av. Anaheim)
- 참가대상 : 8학년~12학년
- 참가비 : \$25(점심포함) * 신청마감 : 12월15일(겨울방학전)
- 준비물 : 주일학교 행사 특별 티셔츠 제공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남가주 소식

◆ 커피와 신앙의 만남 '이나시오 커피' 선물세트 판매

- 수익금 : 모든이들이 즐길 수 있는 쉼터 조성과 가난한 이웃과 나눔실천, 그리고 성당 건립기금을 위해 사용됩니다.
- 문의 : LA 아그네스 성당 ☎(323)731-4433

◆ 남가주 M.E. 송년모임

- 일시 : 12월21일(토)오후 6시 *장소:레이크우드 커뮤니티센터
- 참가비 : 부부당 \$150(경품 포함)
- 연락처 : 본당 M.E.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바오로 & 병욱 올리아 ☎(310)780-9055

◆ 남가주성령채신봉사회 '성령체험 수기' 공모중

- 내용 : 남가주성령채신대회 참가후의 성령체험 수기
- 규격 : Letter 용지 5매내외(글자크기 10포인트)
- 마감 : 2014년 3월31일
(당선작발표 : 2014년 4월)
- 시상 : \$500(성부상), \$300(성자상), \$200(성령상)
- 접수 및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기도회장 ☎(310)780-0369

소공동체 12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욱 올리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엄영희 베로니카 213-278-3279 12/14(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12/14(토) 오후 6시 홈타운부패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12/13(금) 오후 6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박근식 미카엘 316-7608 12/22(주일) 오후 5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윤화경 바오로 999-5808 12/14(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박명순 안나 968-7600 12/13(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남구역 합동반모임 580-2912 12/13(금) 오후 7시 성당
	2	최순옥 스텔라 951-4710	”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욱 올리아 404-1607	정병욱 올리아 404-1607 12/16(월)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서창호 바오로 257-1607 12/14(토) 오후 6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남성철 베네딕도 384-3289 12/13(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김명 스텔라 482-9108 12/6(금) 오후 7시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정종미 클라라 818-1799 12/13(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은미 가브리엘라 617-3568 12/10(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	--

기다림

어린 시절, 12월이 되면 동생과 꼭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조금 큰 나무 하나를 방에 올려다 놓고 그 나무를 장식하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전나무는 아니지만, 나무 가지 여기저기에 하얀 솜과 반짝 종이, 그리고 몇 개의 방울을 달고, 깜빡이는 크리스마스 전구를 걸쳐 놓으면 남부럽지 않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었고, 이를 보는 저의 마음은 무척이나 기쁘고 또 설렘이었습니다. 성탄 시기가 끝나고 다시 장식들을 거두어 들일 때의 귀찮음도 이 순간의 기쁨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그 설렘을 다시 느끼기 위해 하루 빨리 12월이 오기를 바라기도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설렘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아마 무엇인가 큰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기다림이었겠지요. 물론 어린 마음에, 성탄 때 받기를 희망하는 선물에 대한 기대도 한 이유였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 그것만이 아니었음을 지금도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울려 퍼지는 캐럴과 반짝이는 불빛들의 시간을 지나고, 예수성탄 대축일 밤 미사를 드리면서, 또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들려오는 장엄한 성가는 어린 마음에도 은총의 분위기를 느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조그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면서 느끼던 설렘은 분명 이 은총의 느낌에 대한 것이었을 테지요. 그래서 저는 예수 성탄 대축일이 언제나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설렘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마음이 세상의 풍파를 겪으면서 그 은총의 느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쫓기다 보니 차분히 그 은총의 기쁨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은총의 기쁨과 이에 대한 설렘은 기다림이 간절할수록 더욱 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셨나 봅니다.

이번 성탄에는 다시 한 번 어린 시절의 그 설렘을 느끼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이 누추한 마굿간에서 태어나셨는지', '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는지'와 같은 어려운 교리와는 상관없이 그냥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그 은총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김영일 바오로 /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하느님의 메시지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해도 술을 거의 못 먹었습니다. 맥주 서너 모금만 마셔도 온몸이 홍당무가 되고 심장이 뛰곤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난 후 술자리를 피하는 것은 거의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마시기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주량이 약한 사람이 급격히 주량을 늘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지금은 술을 너무 잘 먹어 걱정인데, 심지어는 좋아서 찾아 마시는 정도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들고 성인병도 생기니 술을 줄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는데도 갖은 핑계를 대면서 술 마시는 기회를 만들곤 했습니다.

몇 해 전 월드컵 경기가 한창 열릴 때의 일입니다. 일본에서 오신 아버님 같은 분을 만나 뵙기 위해 부산에 갔는데, 마침 그 날이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손님을 모시고 지하에 있는 바로 내려가 그곳에 설치된 대형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사업상 손님이긴 하지만,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기분 좋게 취해서 우리 팀 경기를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응원을 하던 중에 화장실에 가게 되었는데, 두사람이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이! 거 우리 옆 테이블 글마 봤나?" "누구?" "자세히 보이게네, 그 두산 회장 박용만인가 그 친구인가." "어! 그래? 확실해?" "맞다. 틀림없다. 우와 근데 글마 침부터 끝까지 폭탄주로만 마시네. 한 술하는갑다. 술 억수로 잘 마시네."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뭐 글카다 고마 하느님이 얼른 데려가시겠지." 더 듣고 있기가 민망해서 돌아서며 "제가 박용만입니다. 고마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술 좀 줄여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리로 돌아와 생각하니, 정말 이러다 큰일이 나지 싶었습니다. "그러다 하느님이 얼른 데려가시겠지."라는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강제로 마시는 술을 줄였고 지금은 술을 거의 안 마시는 정도입니다. 회사에서도 음주 민주주의를 회식자리에서의 기본 철학으로 정립하여 싫은 술 억지로 권하지 않고 과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일도 참으로 하느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대부분 건강으로 직접 혼이 나고 정신을 차리는데, 저에게는 구수한 남도 사투리를 하는 두 분의 입을 빌려 하느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일이 늘 이어지니 참으로 저를 예뻐하시나보다 생각하며, 반가운 마음으로 성당 문을 들어섭니다.

◆박용만 실바노 / (주)두산 회장